

플또기

- ▶ 과명 : 장미과
- ▶ 학명 : *Prunus triloba* var. *truncata*
- ▶ 영명 : Truncateleaf Flowering Plum.
- ▶ 한명 : 廣葉桃
- ▶ 일명 : おひょうもも

임업연구원에서 1920년대 북한 의 회령에서 수집하여 식재하였던 것이 점차 일반인에게 알려져 조경용으로 식재하고 있으나 아직은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다. 4월이면 진한 홍색의 꽃 봉우리가 만개 되면서 연한 홍색의 꽃이 가지마다 가득 피어 정열적이고 소담스런 아름다움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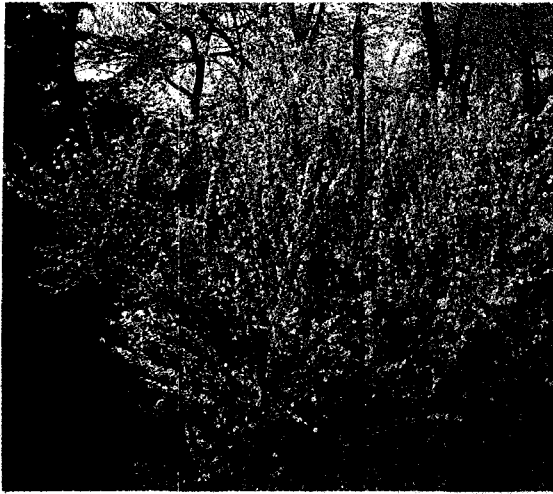
최 명 섭
임업연구원

1. 생태적 특성

함경북도 회령, 무산의 표고 100~400m의 산기슭 양지쪽에서 자라는 낙엽활엽관목으로 높이 3m까지 자라고 지리적으로는 중국에도 분포한다. 추위에 강하고 성장과 맹아력이 좋으며, 내염성과 내공해성이 강하고 비옥 적윤한 토양에서 잘 자라나다. 내음성은 약하여 그늘에서 보다 양지쪽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건조에 견디는 힘은 보통으로 약간 건조한 곳에서도 생육은 양호하다.

2. 형태적 특성

지제부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 둥근 수형을 만들고, 가지는 적갈색 또는 자갈색으로 윤채가 있다. 잎은 어긋나고 도란형으로 길이 3~6cm이고 앞 뒷면은 회갈색으로 엽맥을 따라 백색털이 뻑뻑



▲ 풀또기

하게 나 있으며 가장자리에 복거치가 있다. 꽃은 4~5월에 연한 홍색으로 잎보다 먼저 피고 지름 2.0~2.5cm로서 1~2개씩 모여 달린다. 꽃받침통은 종형(鐘形)으로 열편은 난형이고 길이 1.0~1.5cm이며 연한 갈색털이 많고 자생지에서는 8월에 열매가 적색으로 결실되나 서울에서는 아직 결실된 열매를 보지 못하였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크게 자라지는 않으나 높이 3m 내외의 우산형태로 수형이 아름답고 잎이 돌기전, 진분홍색 꽃봉우리가 만개하면서 주변이 불불는듯 연분홍색으로 바뀌며 정열적이고 풍성하고 소담스런 아름다움이 좋아 햇빛이 잘드는 양지쪽 정원에는 한 그루 정도 식재하거나 공원등 넓은 장소에서는 3~5본씩 군식하여 흐드러지게 피는 꽃을 감상할 만하다.

4. 번식법

번식은 접목이나 삽목, 포기나누기를 하면 가능



▲ 풀또기

하다.

○ 접 목

앵도나무를 대목으로 절접을 하면 번식이 가능하다.

○ 삽 목

작년에 자란 가지를 3월에 꺾꽂이 하거나 1차 생장이 끝난 7월경 꺾꽂이 한다.

○ 포기나누기

3월 말에서 4월 초순에 지체부에서 뿌리를 붙인 가지를 포기나누기하면 번식은 가능하나 대량번식은 어렵다.

5. 그 밖의 용도

한방에서는 이스라지, 산이스라지, 풀또기, 앵도나무 등을 동속 근연식물로 보며, 그 열매를 옥리인(郁李仁)이라 하여 대복수종(大腹水腫), 소변불리(小便不利), 각기 등에 사용한다. 